



결핵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 A

평소 결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결핵에 걸리면 환자들은 일단 당황하게 된다. 때문에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예민해지게 마련.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된 환자들의 질문과 의료진의 답변을 통해 결핵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해보는다. <편집자주>

Q 객담도말 검사를 해야 하는데, 가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약의 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검사는 없나요? 좋아지고 있거나 완치됐다는 건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제 감수성 검사는 객담이나 기관지액 등 검체에서 균이 충분히 배양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객담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경과는 증상, 흉부 엑스선, 객담검사 등으로 알 수 있으며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Q 6개월 동안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했는데, 늑막염이 사라진 자리에 몽우리 2개가 생겨 조직검사를 해보니 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2차 약으로 바꾼 뒤 정말 힘듭니다. 약이 독해서 그런지 더 힘이 드네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다제내성난치환자에 대한 글을 읽고 나니 너무나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도와주세요.

A 처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객담 결핵균이 계속 양성이면 초치료 실패로 정의합니다. 약제 감수성 검사로 내성 결핵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객담 등 검체 배양에서 균이 충분히 자라야 할 수 있고, 결과를 알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때로는 검사 결과가 임상경과나 치료효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늑막염 등에서 조직검사 소견으로 결핵으로 진단되고 배양에서 균이 자라지 않으면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할 수 없고 내성이나 치료 실패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제내성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2차 약이 충분하면 보통 1차약보다 위장장애 등 부작용도 많고 치료기간도 길어지지만 완치될 수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Q 결핵약을 복용중인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가 장염 증세로 한 달 정도 가벼운 설사를 하는데, 혹시 제가 먹는 약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핵진단 당시 5세 아이와 신생아에 대한 예방약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약에 대한 내성이 염려된다는 이유였는데요. 5세 아이는 피부반응 결과 결핵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신생아는 지켜보자는 결론을 짓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처음 약 복용시 한 달 가량 마스크를 쓰고 지내며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잠은 따로 잤고요. 아직까

지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관찰을지 걱정입니다.

A 항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출산부가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경우 소량의 항결핵제가 모유 중에 포함되어 어린이가 섭취하게 되나, 중독 증상을 나타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량이므로 모유 수유를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핵 환자 가족 중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예방치료는 환자 객담 도말결과, BCG접종여부, 피부반응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Q 1차약 복용한 지 40여 일이 됩니다. 약 복용하기 전에 약간의 열감을 느끼곤 했었는데, 약복용 후에 10일 전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급성인후염이라 하더군요. 결핵약복용중에 다른 약까지 먹기가 부담스러워 이비인후과 약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결핵이 발견되어 기침이나 가래 등의 자각증상이 거의 없었고 가래가 나오지 않아 객담, 배양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와 약제감수성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없었던 기침이나 가래, 미열 등이 약복용 후 시작되니 무서운 생각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혹시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A 객담 또는 기관지 세척액 검사로 결핵균을 검출 하는 것이 폐결핵의 확진에 필요하지만 균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핵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으며 객담 결핵균 검사, 흉부엑스선, 증상 등으로 치료 경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발열은 결핵의 전신 증상 중 가장 흔하며 결핵 치료 중에도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결핵약 투약중임을 알리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여기는 미국인데요, 아기가 예방접종을 맞으려 갔는데(현재 18개월) 결핵반응검사를 해보니 15mm 정도가 됩니다. 아기는 BCG 예방접종을 한 상태고 가족 중에 결핵환자도 없는데 미국까지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답답합니다. 양성반응일까요?

A 결핵반응검사는 결핵균에 의한 감염을 진단하는 것으로 발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BCG 접종으로 인해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반응크기가 큰 경우는 결핵 감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환자 가족 중 5세 이하 어린이에서 피부반응검사 양성이고 흉부엑스선상 이상이 없으면 예방치료를 하며 미국처럼 결핵유병률이 낮은 곳에서는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이면 결핵발병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글은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결핵상담실에 올라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묶은 것입니다.